

방사선 이해를 위한 초·중등 교원연수를 마치고 II

이 경 화

서울독산초등학교 교사

그 어느 때보다 무덤고, 무엇보다도 집중 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던 지루한 여름을 보내고 맞은 개학날 아침의 우리 교실...

“방사선? 방사선이 뭐야?”

“쪼이면 죽는거 아냐?”

“이건 또 뭐야? 방사성동위원소협회? 뭐하는 단체야?”

교실 앞 칠판에 보란 듯이 일부러 대충 걸어 놓은 이름표 하나에 아이들은 담임에게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하고선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며 여러 가설을 세운다.

‘하하하, 바로 이거야. 효과가 있어 효과가...’

난 속으로 나의 계획이 훌륭함을 스스로 기뻐하며 아이들의 반응에 난 관심도 없는 듯이 계속 교실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야! 선생님 롯데칠성 공장에 다녀왔나 봐. 사이다, 콜라 많이 먹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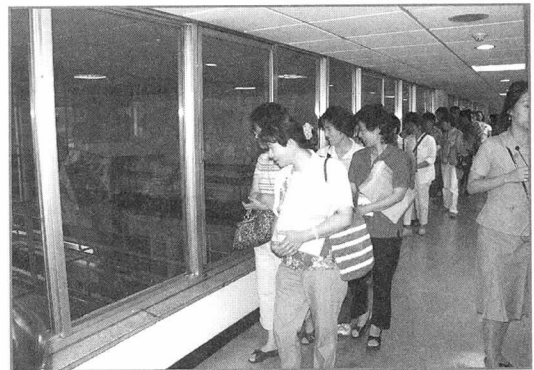
순간 또 다른 아이들의 반응에 머리가 멍해지며 눈앞이 깜깜하다.

‘이건 아니야, 아냐! 그거 말고 좀 더 중요한 단어에 집중 하란 말이야.’

그러나 결국 아이들의 관심은 방사선 이해 교

원연수에서 받았던 이름표에 적혀 있는 ‘롯데칠성음료’에 집중되었다.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난 아이들이 방사선이 무엇인지, 방사선을 왜 이해해야 하고, 내가 여러 곳을 다녀오면서 뭘 보고 듣고 배우고 왔는지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지만 역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심 단어는 따로 있나보다.

하지만 여기서 난 질 수 없지. 그래서 교사로서 곳곳하게, 비록 짧은 지식이지만 아이들에게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방사선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툭 말을 던졌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선생님 음료수 공장에 가서 캔 음료수 만드는

것도 구경하고, 신선한 주스도 마셨다! 진짜 재미 있고 정말 신기해!”

“우와! 선생님 진짜 좋았겠다. 부럽다. 우리도 데려가지.”

“근데 말이지, 중요한 건...”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한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대화가 청소 외에는 마땅히 할 일이 없던 개학날 아침에 아이들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사실 원자력이나 방사선이니 하는 단어들을 평상시에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드물게 접했던 경우의 대부분은 원자력 시설이나 관련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주변에서 무슨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터지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근심어린 눈으로 뉴스를 지켜보거나, 또는 이러한 관련 시설들을 어떤 지역에 유치하여 건설하는 데 따른 의견 충돌의 현장을 지켜보며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무관심한 눈으로 접할 때뿐이다. 그러나 사실 방사선은 예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인식을 하던 안하던 생활 속에 항상 존재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상식들로 인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어줄 방사선의 수많은 혜택 보다는 취급 부주의에 따른 문제점들만이 부각되어 그 존재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역시 그러한 잘못되거나 부족한 상식과 정보 속에서 기껏해야 병원에 가서 X선 촬영할 때는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방사선 표시가 있는 곳을 지날 때는 무슨 전염병이라도 옮을 듯이 아주 멀리 돌아서 다녀야 한다는 생각만을 하

는 것이 고작 방사선에 대한 이해였다. 그러나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간의 삶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한다.

예로 우리가 이전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비파괴 검사나 기능성 신소재의 개발, 오폐수와 대기 오염의 정화, 암 진단·치료와 같은 의학적 활용, 유전자 변이를 통한 종자 개량, 신약 개발, 살균 및 멸균, 병충해 제거 및 부패 지연, 동·식물의 성장 촉진과 같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에 방사선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방사선의 문제점으로 잘못 알고 있는 암 발생의 가능성, 돌연변이 발생의 위험,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잘못된 지식들을 수정하고 오해들을 푸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는 ‘방사선 식품 조사’에 대해서도 관련 업체인 그린피아기술주식회사 견학을 통해 이해를 높였으며, 이는 지난 6월에 발생한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를 답답한 마음으

방사선에 대한 국민이해 프로그램

◀◀◀◀◀◀ 방사선에 대한 국민이해 프로그램

로 학교에서 지켜본 교사의 입장에서 뉴스를 통해 접했던 방사선 식품 조사에 대한 반신반의의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 모두 관련 업체의 현장 견학과 김종경 교수님으로부터의 전문적, 체계적인 지식 전달의 기회를 가졌었기에 가능한 소중한 경험이였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 기술은 세계 6위, 방사선 산업 분야는 세계 30위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과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곳곳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연구를 멈추지 않는 연구원들과 관련 산업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제 부터라도 우리가 이들 분야에 대해 따뜻한 관심의 시선과 격려의 박수로 응원을 보낸다면 우리 삶이 안전하고 풍요로워지는 것 외에도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정받는 또 하나의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돌아오는 겨울 방학에는 교수님께서 적극 추천하셨던 PET-CT 촬영으로 부모님 건강진단을 해 드려야겠다. 이 촬영은 방사선 기술이 의료 장비에 적용된 것으로, 지금껏 자식들 뒷바라지로 당신들 몸 돌보실 틈 없으셨던 부모님에게 있을지 모를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흔치 않은 뜻 깊은 연수의 기회와 함께 세계도자기엑스포 탐방의 시간과 같은 연수생들을 배려한 연수 일정을 계획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방사선 이해를 위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RIA**